고즈넉한 향교에서 전통문화

백제왕도 1번지 익산서 즐기는 함열향교 3樂

익산시는 백제왕도 1번지 익산에서만 만날 수 있는 문화 행사로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제공한다.

시는 오는 9일 문화재청 지역문화재 활용 공모사업 일환인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을 함열향교에서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은 향교·서원 문화재와 배향 인물에 내재된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활용해, 향교·서원을 생기 넘치는 문화공간이자 인문 정신과 청소년 인성을 함양하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문화 향유 프로그램이다.

이번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은 '과거와 친해진 유생' 프로그램으로 시작한다. 오는 11월까지 '백제왕도 1번지 익산, 함열향교의 3락(三樂)'의 주제로 ▲1樂 노는 즐거움 ▲2樂 배우는 즐거움 ▲3樂 함께하는 즐거움 등 3개 테마로 진행된다.

9일 진행되는 '과거와 친해진 유생'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자들은 유생복을 입고 함열향교를 탐방하며 전통 예절, 전통문화를 학습과 놀이를 통해 만나게 된다. 또한 함라한옥체험관에서 가족과 함께 하룻밤을 보내는 '가족공동체 품에 안긴 유생'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참여자들에게 고즈넉한 향교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배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향교의 교육 기능을 재현하는 인문학 강좌 프로그램으로 매년 참여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인문학 학교'는 오는 15일 함열향교 충효관에서 전북대 황갑연 교수의 '성리학의 두 갈래, 주자학과 양명학' 강의로 시작하며 올해 총 7회 진행된다.

또한 10월 8일 오전에는 초등학생 30명 대상으로 함열향교, 함라마을, 함라산 등을 소재로 하는 어린이 시화 대회 '어린이 시화 학교'를 진행한다.

오후에는 함라면 주민들과 더불어 지역민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전시·공연·체험 등 종합 프로그램 '대동 한마당'을 진행할 예정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정 1년 경과 진행 점검·사업계획 현행화 논의

군산형 일자리 현장 실사

군산시는 군산형일자리가 지난해 2월 25일 지정된 이후 1년이 경과해 정부 상생형 일자리 민관합동지원단의 기업현장실사와 연차 계획에 대한 검토 자리를 가졌다고 6일 밝혔다.

현장실사에는 산업·기술·노동·회계 등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10여명의 민관합동지원단과, 군산형일자리 참여기업, 군산형일자리 실무추진위원, 유관기관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현재 가동중인 참여기업의 사업장의 생산준비 상황과 신규공장 착공상황 등을 점검하고 군산형 일자리 총괄 진행상황 보고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명신 기술교육원에서 진행된 총괄보고 자리에서는 군산형 일자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안과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또 시장 상황을 반영한 참여기업들의 연차별 계획 현행화를 위해 명신은 이집트와의 전기마이크로버스와 E-툭툭 협약 반영, 에디슨모터스는 연차별 버스와 트럭 생산 물량 조정과 인도 수출 물량 반영, 대창모터스와 코스텍은 연차별 생산물량 조정 등을 논의했다.

군산형 일자리는 지난 1년간 추진체계를 완성하고 임금관리위원회에서 의결·제시한 임금교섭 기초자료를 토대로 공동교섭단에서 기본교섭 합의를 도출했으며, 공동근로복지기금 도입을 위해 고용부에 제도개선을 요구, 관련 법규 개정을 이끌어 내는 등 상생협약의 세부 이행사항을 차근차근 실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산업부 공모를 통한 중견·중소 전기차관련 협업기반 구축(200억원)사업으로 전기차 관련 업체간 협업의 기틀을 마련하고, 올해 3월 신규 국가 공모사업(산업용 자율주행 스케이트 플랫폼 개발)에 응모하는 등 R&D사업을 추진중"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군산형 일자리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산=남현봉 기자

군산대-군산시청 출입기자단 대학 설명회

군산대학교는 6일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군산시청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군산대학교의 미래비전과 앞으로의 대학 운영 주안점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설명회에는 군산대 이장호 총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 및 군산시청 출입기자단이 참석했다.

이장호 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학에는 지역의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청년 인재들이 많이 포진해 있어 지역성장을 견인할 수 있고, 반면 지역사회는 대학에 대한 지지와 관심을 통해 대학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으므로 대학과 지역사회는 선순환적 상생관계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지역사회에서 비중이 가장 큰 공동체인 군산대학교의 새로운 출발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이장호 총장은 군산대학교의 혁신 비전 중 하나인 "ICC 기반 특성화 대학부제"에 대한 소개와 군산대학교가 지역과의 상생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공모사업들을 소개하였다.

군산대학교는 현재 산학협력단 산하 기업협업특화센터(ICC) 기반 특성화 대학부제로의 전환을 준비 중이다. 이 개편안의 방향은 현행 단과대학 중심의 학사구조를 특성화 대학부제로 전환하는 것으로, 국립대학의 특성과 역할을 고려한 전공유지 구조를 주요 골자로 한다.

/군산=남현봉 기자

익산시가 현장에 맞는 특화된 농촌체험 상품 개발과 적극적인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농촌관광 활성화에 나선다.

농촌관광, 현장에서 답을 찾다

익산시, 서동농촌테마공원 활성화 방안 포럼 개최

익산시가 현장에 맞는 특화된 농촌체험 상품 개발과 적극적인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농촌관광 활성화에 나선다.

시는 6일 '익산 방문의 해'를 맞아 농촌관광 전문가와 학교, 관련 단체 대표들과 "농촌관광과 연계한 서동농촌테마공원 활성화 방안"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전남지역공동체활성화센터 모세환 대표의 순천만국가정원 활성화 우수사례 발표를 시작으로 완주군 강평석 국장의 와일드 푸드 페스티벌 잘된 점과 아쉬운 점 그리고 향후 계획을 발표해 농촌관광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어서 농촌 디자인 최성재 대표는 "농촌관광과 연계한 농촌테마공원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서동농촌테마공원 공간 활용방안과 최신 트렌드에 맞는 프로그램 등을 제시했으며, 인근 관광자원인 미륵산권역, 6차 산업, 농촌 민박 등과 연계해 수요자 중심의 여행상품 개발 필요성에 대한 사업을 제안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하나 같이 현장체험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현장교육의 장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자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포럼을 통해 지속 가능한 관광생태계 구축과 코로나19 이후 농촌관광과 연계한 여행상품 개발에 대한 방향성을 모색하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농촌관광의 메카로 자리매김 하도록 전략을 세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다문화 내·외국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익산시가 다문화 내·외국민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

익산시다문화이주민+센터는 6일 센터 내 회의실에서 실무자 회의를 개최하고 외국인 체류 허가 기간 부여 기준 변경, 고용허가서 신규 발급 일정 공유 등 부처 간 정책 변경사항과 지난해 이용자 현황,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공유했다.

센터는 지속적으로 실무자 회의를 개최해 부처협업 및 적극 행정에 관한 방안 논의를 통해 민원인에게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센터 담당자는 "유관기관 통합으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다"며 "센터를 방문한 내·외국인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실무자 회의를 개최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 은파호수공원, 방역 유지 비상근무 실시

벚꽃 개화기에 맞춰 군산시가 관광지 방역질서 유지를 위한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시는 오는 9일부터 30일까지 주요 관광지인 은파호수공원, 시간여행마을, 경암철길마을의 방역질서 유지를 위해 매주 주말 비상근무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비상근무는 주요 관광지에 마스크착용 및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관광지 현장순찰 및 관광객 불편사항 등 수시 점검이 이뤄진다. 특히, 벚꽃 개화에 맞춰 은파호수공원 내 주차장 혼잡 예상으로 인한 질서유지, 편의시설 점검 등을 통해 관광지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근무조를 편성·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비상 근무를 통해 방역과 질서유지에 만전을 다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남현봉 기자

군산시, 2022년 사회조사 실시

군산시는 오는 11일부터 27일까지 15일간 시민의 사회적 관심사와 만족도를 파악해 시민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2022년 군산시 사회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회조사는 공교육비와 사교육비의 적정성, 평생교육 이용실태 및 희망강좌,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 시민의 삶에 대한 만족도 등을 조사한다.

조사는 정책 발전에 기여하고 파악할 수 있는 사회지표를 생성할 수 있도록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조사는 표본으로 선정된 1,005가구 중 만 15세 이상의 가구주 및 가구원이 대상이며, 실생활과 밀접한 가구, 소득, 고용, 복지 등 50여개 항목에 대해 조사원이 대상가구를 직접 방문해 조사한다.

안전한 조사를 위해 조사요원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를 항시 진행하고, 1일 2회이상 발열체크, 감염 여부 및 동선파악 실시 등 방역수칙을 지켜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총력을 다해 진행할 예정이다.

/군산=남현봉기자